

참 고 문 헌

- 림인식, 목회자의 갈등, 해소될 수 있다. 목회와 신학11(1990년 5월).
 이만홍, 평신도와 교역자의 갈등. 목회와 신학11(1990년 5월).
 트레드웰, 윌리엄 C., 갈등 그 바른 이해를 위하여. 목회와 신학11(1990년 5월).
 Frost, Joyce Hocker, and Wilmot, William W., *Interpersonal Conflict*. Dubuque, Iowa: Wm. C. Brown Company Publishers, 1978.
 Hill, William, *Survey on Conflict-Related Bible Verses in the N. T.*. 1978.
 Wheaton Graduate School, Wheaton, Illinois.
 Huttenlocker, Keith, *Conflict and Caring*. Grand Rapids, Michigan: Zodervan Publishing House, 1988.
 Kilmann, Ralph, and Thomas, Kenneth. "Interpersonal Conflict Handling Behavior as Reflections of Jungian Personality Dimensions." *Psychological Reports* 37(1975):971-980.
 Leas, Speed and Kittlaus, Paul, *Church Fights : Managing Conflict in Local Church*.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73.
 Lewis, G. Douglass, *Resolving Church Conflicts : A Case Study Approach for Local Congregations*. San Francisco: Harper & Row, Publishers, 1981.
 Pinkham, Wesley M. and William Hill, *Conflict : A Moment for Ministry*. Wheaton, Illionios: Wheaton College, 1979.

육적으로 축복을 움켜침

(창 27:1-20)

박 종 칠 교수

W.H.Gispen은 창 27장을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에서에게서 도적함” (Jacob ontsteelt Esau de zegen van Isaak)이라고 하는데 (알더스도 비슷하게 함), 우리는 누차 성경은 어떤 인물들의 전기나 생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루느냐로 볼때 대략 20절에 와서 어떤 확실한 구분을 지을 수 있다. 20절 이후로 하나님의 간여하심을 볼 수 있다. 자세한 면은 주석을 함으로 밝혀 지겠다.

A. 주석적 참고사항

1. Driver는 1절에서 성경이야기의 불확실성을 나타낸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이삭은 아이들을 낳을 때가 60세(25:26)이고, 에서의 결혼 시기는 26:34에 보아서 100세가 된다. 그런데 35:28에서는 180세에 그가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27장이 26:34 직후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삭이 축복의 말씀을 한 것은 100세경인데, 죽을 때까지는 80년이 더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서는 말하기를 “아버지자를 꼭할 때가 가까웠은즉(27:41)”라고 한것을 보면 이삭의 종말이 가까왔음을 말해준다.

Wiener는 LXX에 따라서 이삭이 130세에 죽었다고 보고, 40이니 60이란 주는 어림수(roude getallen)라는 것이다. 그리고 27:41에 LXX는 기원문으로 번역되고 있음에 주의한다. 그리고 27:2, 4절 말씀은 이삭이 자기 죽음을 아직은 적접적으로 생각을 않는다고 한다.

지금 문제는 40이니 60이니 하는 수가 종종 “어림수”로 보아져서는 안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고 27장이 26:34 직후로 보아야하는가 할때 그렇지 않다. 마소라 본문에 따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30살(41:46), 7년 풍년(41:47), 2년 흥년 후에(45:6) 요셉은 자기 형제에게 알렸다. 그리고 아주 빠르면 일년 이내에 전 가족이 애굽으로 왔다. 그때에 야곱은 130살이었다(47:9). 그때 요셉의 나이가 39 혹은 40세였다. 말하자면 요셉이 출생할 때가 야곱은 90살이었다. 요셉은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은 지

14년에 태어났다(30:25). 그러므로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 갈때가 76이 고 이삭은 쌍둥이 날을 때가 60세였던고로(25:26), 그 당시는 136살이었다. 그러나 26:34와 27장 간에는 36년간의 간격이 있다. 그때에 이삭은 전적으로 맹인이 되어 늙었으니 자기 죽음이 가까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27:2,4). 그러나 이후에 40년 더 살게된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참조하라.

2. 7절에 “여호와 앞”(הַנֶּאָזֵן יְהוָה)을 두고 어떤이들은 이삭의 가문에 야웨 형상이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15절에 리브가가 야곱에게 “좋은 의복”(טְבֻרָה)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의식이라고 한다(Stade). 그러나 이런 증거는 없다. 히브리 전치사 “리프네”는 공간적으로 “앞에”라는 뜻과 시간적으로 “전에”, 어떤 때는 어떤 편의 판단, 의지, 찬성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그래서 E.A.Speiser는 “야웨의 찬성으로”(with Yahwehs approval) 번역한다. (창세기 pp. 51, 209) Skinner은 “야웨 임재의 엄숙한 의식에서”(in the solemn consciousness of Yahwehs presence)라고 한다.

B. 본장에서 논란되는 종교와 도덕성의 문제

어떤이는 이 시대에는 신적 계명이 지배하지 아니했다는 점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나 축복의 힘에 대한 신앙을 설명하려 했다. 즉 이 당시는 자연적 전통의 주장들이 곧 도덕적이었다고 한다.

궁켈은 이 문제를 더 넓게 다루는데 그에 따르면 어떤 도덕적 규율은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한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 사기 때문에 징벌했다고 하지 않는다. 에서에게는 아무런 죄악될 것이 없다. 여기는 단지 익살스러운 민담일 뿐인데 종족들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되는 희열이 있을 뿐이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의식에 비난만한 것은 특히 신적축복을 간교로 얻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으로 설명한다면 아직 그 당시에는 종교와 도덕 사이에 밀접한 유대관계가 없던 때였다. 야웨는 아직은 십계명의 신이었고 아주 원시적 인물로서 자기 좋아하는 자나 자기 종족은 어떤 방법으로든 악한자들이라도 구원하는 자라고 한다. 그들이 매우 사랑을 받았기에 J나 E까지도 이 우스운 이야기들을 저들 민담 수집에 받아야만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전적 진화적 사고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나 여기 맹인된 아버지가 속이는 것과 같이 익살이 있으나하는 문제에 가서는 데 19:14과 신27:18을 보라. 야웨는 율법을 주시는 엄격하신 하나님임이시기도 하다.

Skinner는 J같은 훌륭한 자료에서 “도덕적 고려에 무관심”(an indifference to moral considerations)을 놀라워 한다.

여러 해석자들은 창27장이 윤리적으로 매우 저급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야웨의 도덕적 성품이 별로 없다는 증거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Driver가 지나는 말로 언급한 것은 “저자는……전혀 코멘트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the writer…… narrates all without comment)”고 한다. 알더스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관찰해서 대답하건데, 사건의 객관적 이야기는 이루어진 것에 대해 찬성이나 혹은 변명 같은 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뿐더러 이 이야기속에는 죄감에 대한 결정적 함축성이 있음을 감지해야 한다. 12절과 13절에 야곱과 리브가는 이들의 계획에 대해 행해진 것의 ‘거짓됨’ 성격을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이 나머지 이야기들에서 행하여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명백히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면으로는 거룩한 저자는 25:28에 하나님의 예언이 이삭이 에서에 대한 편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 줄려고 한다. 이것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다. 이 이야기들의 여러 부분들을 옆에 놓고 볼때에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반대되는 것이 확실하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리브가와 야곱의 계략에 대해 변명을 못해 준다할찌라도 야곱이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아니했던 사실은 명백히 한다. 야곱은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가졌다. 그러나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께 공급해 주신 자는 신앙에서 그 축복의 허락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져야만 했다.

C. 축복과 저주의 문제

1. 창세기에 축복의 말이 많이 나오는데 27장에서는 이 개념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여기서 사람들이 취급하는 문제점과 그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Leeuw는 역동주의(dynamism)를 말하는데 이것을 정의하기를, “거룩하고 비인격적 힘(혹은 힘들)에 대한 신앙인데, 그것은 영적이면서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물들이나 짐승들이나 사람들이 가질 수도 있으며 갖지 못할 수도 있는 일종의 유동체 (fluidum)”라고 한다. 종교사에서는 이 힘을 “마나”(mana)라고 지칭한다. 사람들이 이 “마나”를 가진 존재와의 관계를 “타부”(taboo)로 표현하고 아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긴장관계로 본다. 그리고 이 마나를 가진 대상들은 “서물들”(fetisjen)이라고 한다.

이제 마나를 가진 말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발설은 마치 장착된 권총을 발사하는 것과 같다. 축복은 일종의 구원소원이 아니라 선하게 작용하는 힘이고 저주는 덜 우호적인 발설이 아니라 구체적 위험 대상이다”고 한다.

3. Leeuw의 말이 다소 일반적 차원에서 한말이라면 Pedersen은 좀 다르다. 그는 셈족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 비교를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전체문화와 종교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 그는 “영혼”(Ziel)을 다루면서 시작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사고의 전형적 전체적 구조를 말한 후에 영혼의 엄청난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영혼은 “내적인 것 (innerlich)”이 아니고 영혼은 타에 작용하고 또한 밖의 영향을 받는다. 영혼은 본질적으로 넓이나 깊이나 공간이나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여기서 말의 힘도 정의되고 있는데 말은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고 순수한 물질적인 어떤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 영혼을 둔다. 그러므로 말은 무게가 실려있다(geladen). 그런 고로 그의 저주와 축복은 실제적인 힘들이다. 그렇잖으면 “입술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고로 말과 사물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여기서 그의 축복관을 살펴보면 영혼은 힘을 실은 전자와 이스라엘인들은 중심에서 역사하는 힘과 변두리에서 스스로를 나타내는 힘으로 구분을 지우지 않는다. 이러한 생동적인 힘이 바로 축복인데 내적 힘이 곧 외적 행복인 것이다.

자기 영혼에 인상을 남기는 모든 것은 이 심리적 전체성에 속한다. 따라서 이 모든 것에서 축복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리적 고통 때문에 축복은 또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어간다. 축복자체는 환경주위로 넓혀간다. 비록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하더라도 조상들의 상속기업이다. 축복은 사람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지 않아야 하기에 그것은 사람 안에 있으면서 주위환경을 빛내는 힘이다. 그러므로 전염성있는 어떤 것이나 한편에서는 사람이 자기 계획과 행동을 하고 다른편에서는 결과들이 있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연결고리를 놓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 안에 힘을 주고 결과들을 이끌도록 한다. 그러한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것은 수동적 의미가 아니고 능력을 소유하는 어떤것을 의미 한다. 축복은 말의 수단을 통해 가장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접촉같은 다른 방식으로 되어지는데 즉 앤수, 인사, 키스 등등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인에게는 원시적인 역동주의 형태가 있었다. 축복은 은혜스러운 마나며 저주는 멸망시키는 마나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유동체적 어떤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4. Hempel은 Pederson의 개념을 중요하게 교정하는데, 그는 종교사학파

적 관점에서 축복과 저주를 먼저 말한다. 그는 이들은 마술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앤수나 주문등과 같은 것으로 전달된다고 한다. 특별히 말로 전달된다고 한다. 그래서 “종교적 관통”(religiöse Durchdringung)을 말한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 문제를 다루면서 이스라엘의 특이성에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구약에서도 “원시기초단계”(Primitive grundlage)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주는 것은 창27:37절이라고 하는데, 속임으로 슬쩍 훔친 축복일망정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다(das sauch nach entdecktem Betrug dein durch ihr erschlichener Segen nicht rückgängig gemacht werden kann). 그러나 이스라엘의 독자적 발전을 아주 강조하는데 3가지 요소가 지배하고 있다고 그는 본다.

- (1) 축복과 저주는 야웨의 뜻에 복종한다.
- (2) 축복에 대한 종교적 관용 경향자체는 형식상 그 대상은 야웨이다는 것과.
- (3) 결국 축복과 저주가 결합되는 조건이 성립되고 야웨종교의 윤리화하고 내면화하는 작용이 일어났다.

5. Beyer (Kittel, WörterbuchII, enlogic p753f)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한다. 창27장에서 원시적 개념의 근원이 엿보인다고 하자는 축복은 죽는 자가 한번 돌이킬 수 없이 전수하는 생의 능력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가 또한 생각하기는 이스라엘에는 마나 신앙이 깨뜨려졌다고 본다. 언제나 모든 축복의 운송자와 주시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이 하나님은 비인격적이 아니라 인격적 의지이다. 그런고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축복은 주권적 자유로 주시는 은혜선물이다. 그런고로 축복은 그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종교적 도덕적 조건에 매여 있다고 한다.

6. Hölscher은 “주문 혹은 예언”(Zauber-order Wahrsagespruch)에서 나름대로 밝히는데 사람들은 밀되어진 말에 대한 비밀스러운 힘을 믿는다. 그것은 내뱉은 이상 돌이킬수 없다 한다. 여기 축복의 특징이란 것이 영혼이 죽는 순간에 마귀(demon)가 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적으로 성경의 사상과는 다르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Pedersen이나 Stade들은 주는 순간에 내뱉은 저주나 축복의 말들이 작용한다고 하여 27:13절에 관련해서 저주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Marti도 축복과 저주는 조상들에게서 나와서 미래를 결정짓는 실제 힘을 가진다. (gelten als reale Kräfte, die von den Vätern ausgehen und die Zukunft bestimmen)고 한다(GR p116). 알더스도 이에 못지 않다. 그것은 선지자

적 미래 예언에 대해 가지는데 그것은 단지 소원이 아니라 한 행동의 특징을 가지면서 이로써 미래가 작용되는 미래의 사건들을 드러낸다고 한다.

7. 성경적 축복에 있어서 말과 행위가 밀접하게 거의 한 단위처럼 만들어져서 말과 신랄한 구분이 없는 것은 고대 그들의 마법적 축복관과 차이가 없다. 히브리 “다바르”(话语)란 용어는 발언을 표시 할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thing)이나 사건(event)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방인은 말씀과 행위가 그 자체로 능력을 가졌다고 믿는 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능력이 그의 말을 이룬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었다. 즉 이방인들은 말과 행위 그 자체가 궁극적 실재인 양 생각했다.

더더구나 마술가들에게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공포를 적절히 배합시켜 영혼들을 자기를 통제하려 하지만 성경의 말과 행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8. Pederson 의 말은 아주 매력적인데 정통주의적 교의적 전제차원보다는 성경적인 분위기가 숨쉬고 있다고 느끼는게 옳은것 같기도 하다. 비교종교사는 소위 말해서 원시 종교들간의 친근성을 발견하도록 했는데 두가지 점에 특별히 유의하면

(1) 모든 원시종교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모든것이 종교적으로 철저히 이해되고 있다.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유대가 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2) 이와 관련해서 원시종교에는 피조물들간의 상호 관계도 관찰되고 있다. 즉 사람들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과 통일성을 갖고 있다. Pederson 은 이것을 표현하기를 영혼의 “확대(extension)”라고 하고, 여기에는 “심리적 공동체(psychic community)”가 있다. H. W. Robinson은 이를 “연대적 인격”(corporate personality J. Hempel Werden und Wesen des A. T. BZAW 66, Giessen 1936 p49f), 이 문제를 Johnson은 이스라엘 신 개념에서 하나와 다(多)를 다루고 있다. 이런 상호관련성을 공간적으로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시간적으로도(인간세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중적인 상호관련성을 무시하고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렵다.

9. 이 비교종교사에 대해서는 무론 비평적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 말하는 원시종교란 폐쇄된 문화 또는 종교를 의미하는데 개화되는 과정 없이는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역사는 개화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근거를 이루는 것은 종교는 낮은데서 높은데로 발전하는 진화종교이다. 그 발전과정의 기독교 종교라고 본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대종교도

이방종교의 원리적으로 같은 선상에서 본다. 고대종교에서부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스라엘인들이 성장하여 바엘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었다고 한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모세나 이사야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들이 나오자 나타난것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차이들이 있어도 같은 인간 기능에서 발전한 것이라 한다. 성경의 말씀계시를 표준으로 인정하지 않은 한 권위 문제며, 진화문제 같은것을 개의치 않는다. Pederson은 이스라엘 종교를 전혀 이런 각도로 고대 셈족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Hempel이나 Beyer 역시 차이는 조금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 종교를 모든 종교가 기원하는 공동 원시적인 뿌리에서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원시종교들의 타락의 문제에 가서는 원리적인 차이를 인정치 않는다.

10. 우리가 종교사에서 성경을 규범화진 것으로 존경하고 역사에서 타락의 요소를 고려한다면 앞으로의 진전되는 역사과정에서는 두가지 요소들이 지배해야 한다.

(1) 아브라함 이전의 계시 사실

(2)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계시 파리(afbreken) 사실

(1)에 관해 말하면, 기독교에서도 내재적(inntae) 의미에서도 다소 자연신의식을 인정하는 말을 한다. 여기서 모든 인간과 백성들의 종교성을 설명하려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사상과 배치된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말씀계시는 그 당시 흘어지지 아니한 모든 백성에게 있었다(창11장). 이 사실이 피조물 관찰에서 외면될 수 없다. 여기서 모든 원시종교들에서도 “낙원시대”, “창조설화”, “홍수설화” 등을 볼 수 있다. 이로 보건데, 모든 종교들이 아브라함 이전의 계시는 공동뿌리를 가졌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 뿌리는 전제된 원시 인간의 가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사실 원시 인간에게 주어진 계시내용이다. 이러므로 바울을 로마서 1:19에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계시하셨다)”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자연적 계시가 아니라 말씀계시인 것이다. 그러나 역사가 아무리 발전하고 아브라함과 후대 세기간에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이 공유적인 계기(gegevene)에서 분리될 수 없다.

(2)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임한 계시 말씀은 그 우주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특수적 성격을 가진다. 말씀 계시가 이스라엘 밖의 민족들에게는 이탈된 것이다. 말하자면 (1)에서 알려진 하나님은 이제는 더욱 (시대의 흐름때문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된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개입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전승의 요소인데, 이는 받아진 계시를 이상 더 부패되지 않게 운송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요소들은 잊어지고 또는 통일성이 이상 더 전수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부패 문제인데

주어진 계시는 여러가지 인간의 말들로 확장되고 이러므로써 회복 불가능의 말씀들이 파묻혀 버린다. 이런 과정이 과도하게 역사와 함께 진행한다. (이러므로 받아진 계시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라”는 명령이 초대교회에 거듭나 타남을 잊지 말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바울이 “짓밟는다”(ten onder honden)는 요소인데 죄는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잇는것, 부패하는것), 받아진 계시를 짓밟고, 부인하고, 버리도록 한다. 여기서 계시에서 “아무 것도 감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다. 이 모든 요소들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11. 이런 면에서 “원시종교”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때 아브라함을 본 것점을 하여 볼때 계시되지 아니한 이방백성의 종교이다. 이 기점은 해서 볼때 이미 밀한 두가지 요소가 있다. 모든 피조물이 종교적으로 정의된 종교라는 것과 피조물들 상호간의 관계이다. 이 관점에서 볼때에 모든 종교는 그것이 원시적이라 할때도 본질적으로 후대 종교들보다 더 높은 종교들이다. 이 관점에서 볼때에 이스라엘 종교도 마찬가지로 원시적 특징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앞의 10의 (2)에서 말되어진 바의 그런 요소 즉 말씀 접촉의 괴리가 치명적이 되었기에 앞의 계시에 대한 아주 강하고 아주 정확한 기억을 가져도 여기서는 하나님을 이상 더 접촉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인자를 보여주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 길로 견도록 하신다. 그는 은사는 주지만 자신을 이상 더 계시하시지 않는다(행 14: 16f). 그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만 직접으로 알려지지 아니한 하나님이시다(행 17: 27f). 아무런 접촉점이 없다. 저들은 찾으려고 하나 계시의 하나님을 만남에는 허사다. 이방 종교들의 신들은 그 이름 뜻이 만능신(deal-god)이라 하면서,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양 개념이 서로 나타나고 있다(예컨데 애굽의 신 Atum).

12. 이런 현상은 종교가 계시 괴리로 인해서 어떻게 발전하는가하는 전형적인 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극히하게 그에 대해 얻는 계시 형태는 가진다. 알려진 그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만 알려지지 않는 “그 어떠한 신”(Het)에 대한 것만 가진다. “그” 신적인것이 모든 “마나”(mana)에 나타난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나 신적인 것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는 모든 것에서 만나짐으로 해서 그 생활이 지배하는 것을 본다. 그리하여 비인격적인 힘, 만물에 배여 있는 유동체를 본다. 여기서 역동주의, 다신론주의적 혼합주의가 나온다. 이런세상에 자연히 주문이 큰 역할을 차지한다. 인간과 환경간의 접촉, 인

간과 조상들이 마나를 통한 접촉, 비밀스런 피의 누대, 피가름, 비밀스러운 생활의 연계성, 또한 말, 키스, 암수 같은 접촉을 통해 유동체로 충만해 지는 것이라고 한다. 종교적인 한계성이며 국가성을 종교족 연계성으로 극복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것은 계시된 “그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숨겨진 그것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그 연계성이란 것이 역시 “그것”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숨겨져 있기에 피조물 자체 안에 신적인 것은 볼수 있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며 다스리지도 못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조물에서 찾는 것은 계시 말씀속에서의 만남이 거두어졌기 때문이다.

13. 종교 발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이해케 한다. 시간이 갈에 사람들은 세계를 “발전한다” 그래서 점점 피조물의 비밀이 거두어지고 의술, 지질, 자연 지식을 얻게 된다. 원래 신의 거룩하게 존경된 힘이 피조물의 힘으로 여겨지고 사람들이 복종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그 첫 열매는 생활의 세속화였다. 원시적으로 신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을 자기 힘으로 한다. 현대인의 생활은 아무런 제의적 간음은 하지 않지만 타락은 더욱 심해졌다. 예컨대 결혼생활이 비기독교화되고 세속화되었다. 이상 더 하나님을 고려치 않는다. 현대의학에 죄의 사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2) 인간은 자유적 존재로 떨어졌다.

(3)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속화되는 잘못만 아니라, 피조물과 피조물간의 관계도 개인주의화가 되었다.

14. 창27장의 축복의 문제를 살펴봄에 부록으로 길게 살펴 보았지만 여기 창27장에 원시종교의 기원이 있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여기 축복의 말씀이 “마나”말씀으로 생각되는가 할 때에 그렇지 않다. 성경은 야웨와 피조물들간의 경계를 완전히 유지한다. 오직 야웨만이 축복을 좌우하지 주문이 아니다. 알려진 말씀이 결정적이며 효과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나 그러나 이 말씀이 싣고 있는 (qua talis geladen)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삭이 예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한 사실에 있다. 그러기에 효과가 있다. 축복의 공식은 (23: 28) 그 자체 내재하는 힘의 움직임에 있는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의 작동하는 부르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Volz는 이 축복을 “간청하는 기도의 한 특별한 형식”(eine besondere Form des fibruttende Gebets)이라고 한다. 그러나 Beyer가 생의 능력이 전수된다고 함은 옳지 않다. 여기 전수되는 것은 이삭 안에 거하는 힘이 아니라 그에게 말되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het tot en over hen gesproken woord der belofte). 이 말씀이 Hempel이나 Beyer의 생각하듯이 원시적 의미에서 돌아킬 수

없는 것인가를 할때 그렇지 않다. 야곱의 반대에서 분명하듯 (12절) 그 축복은 윤리적 조건들에 달려 있다. 그 말씀이 발설이 되고 돌이킬 수 없이 작용한다고 하나 그러나 다르게 역사하는데 말씀이 발설될 효과를 가지는데 윤리적 조건에 달려있다. 축복은 조건적이다. 이삭이 말하는 (33절) 돌이킬 수 없음을 달리 설명해야 한다.

D. 토레도트 전체에서 볼 때 이 부분의 의미

1. 앞에서 이 부분의 표제를 “육적으로 축복을 성취함”으로 했는데 히 11:20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라고 되어있다. 여기 “육”과 “믿음”이 서로 직접적으로 서로 대하고 있으나 서로 모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특수한 내용에 강조해서 보아야겠다. 히 11:1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였으니, 죽장들은 약속들(약속된 좋은 것)을 얻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바라는 것들”(elpizomena)로 “보지 못하는 것들”(oublepomena)로, “장차 오는 일”(mellonta)로 남아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은 가졌으나 오직 약속이며 저들이 받았던 말씀은 미래에 있는 것이다. 그들 중 어느 한 분도 약속을 얻어내지 못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은 이런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즉 모든 죽장들은 저들의 행위들은 이루었는데 얻어진 현재, 보이는 선한 것들에 의존하지 않았다. 단지 보이지 않는, 바라는 장차 올 선한 것들에 대한 말씀 위에 세웠다. 그런고로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의 모든 일에서 믿음의 일로 표상할 수 있다. 에서 역시 히 11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로 행동하여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선한것들을 향하여 손을 뻗는다. 그는 장차을 것을 원했다.

그러나 이 믿음의 활동이 동시에 육적일 수 있고(sarkikos),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오직 복음(epangelia)과 믿음(pistei)으로서만 확실한 것, 즉 장차올 것, 보지 못한 것들을 사람들은 (mellonta ou blepomean)복음과는 배치되는 방법으로 실현하려고 한다. 환언하면 약속에 따라 성취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동하므로 그 약속이 따라오고, 그러므로 인간육성을 부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못하면 육적이다. 창세기 저자는 인물들에 대한 그렇고 저렇고 하는 판단 아니 여기서 일어나는 사건 위주의 전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25:23아니 28:1-4, 10-22에서 분명해 지듯 야곱은 야웨가 그에게 주기로 한 축복을 얻었다. 또한 이 책의 결과에서 분명하듯 야웨는 이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임이다(28:13). 이로 보건데 27장에서 서술되어 있는 것은 야웨는 죄있는 인간들을 수단으

로 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신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삭과 에서에 대한 동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비교 30-40절). 이 인물들의 관련된 독신적이고 죄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아야겠다.

2. 먼저 이삭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분명히 리브가가 쌍둥이 출생 전에 받았던 신탁 말씀을 알고 있다. 리브가가 자기 사랑하는 이에게 알려주지 아니했을리 없다. 그리고 이삭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야곱이 리브가에게 알렸고 리브가는 이삭에게 알렸다. 그러나 이것이 주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길것이다고는 하셨지만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실현될것인지는 알려주지 아니하므로 이삭의 행동(축복을 함에)에 아무런 규범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에서를 축복하려함에 전에 리브가가 어찌할바를 몰랐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 보았어야 했다. 그런데 이삭은 오히려 에서는 장자로서 별 하자가 없는 한 그를 장자로 보고 축복하려 하는 것이다. 그 신탁 말씀이 어떻게 실현될것인지 축복하기 앞에 물어 보아야 겠다는 그런 문제 의식이 전혀 없다. 환언하면 장자권의 신탁말씀과 내가 축복자로서 매여 있는 범과는 어떻게 조화되는가 하는 종교적인 문제에 관심없다. 반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는 반대로 자기의지, 자기 선호에 확고히 서 있는 것이다. 이삭의 죄는 처음부터 에서를 장자로 보고 인정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는 그를 계속 장자로 인정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지금 이삭은 야곱의 죄 때문에 축복에 고려의 예상도 안함에 안다. 하나님께서 큰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수행한것인지는 그 방법이 숨겨 졌을때에 이삭은 자기 처신에 하나님결정을 물어보고(orienteren) 적어도 아니면 축복을 받음에 관련되는 하나님의 계시된 명령에 준행해서 판단했어야만 했다. 그 규범은 아브라함에게 계시되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tamim)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에 관심할지 이삭은 모르는 판에 에서를 축복할 것을 미리 정해 놓은 결정대로 할려고 하지 계시된 언약의 규범대로 일치하지 않는다. 이삭은 우리보다는 에서에 대한 더한 정보를 갖고서 에서가 이상 더 유산자로는 합당치 않음을 알고 있다. 에서는 직업선택 언약을 부인하여 그의 장자 명분을 만홀이 여겼다. 특히 그의 결혼 생활은 이브라함의 구별된 생활에 일치하지 아니했다. 그 결혼 생활은 이삭에게 마음의 근심을 주었던 것은 세상에서 나그네에 위치를 유지하는 것을 전적으로 거절하셨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에서부터 (작정에서 아니라)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할 것은 못되구나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삭은 언약 멸시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행동에서 육이 그를 지배하고 이로써 에서의 전교육을 망가지게 하였다. 사슴 고

기가 그의 구미에 맞기에 축복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 행위에는 아무런 영적동기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에서에게 있는 명백한 사실들에서 에서는 축복을 상실하여야 마땅한것이다. 어디를 보아도 말씀의 성취가 어떻다는것을 이삭은 알게 됐다. 즉 큰자가 장자의 명분을 영원히 업신여기므로 자기 장자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섭기는 위치를 망쳤다. 그러니 이삭의 축복 선택은 하나님 선택에 일치하지 않고 유산을 업수히 여기는 자를 택한것은 하나님 법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18-24절에 나오는 이삭은 물어보지도 않는 인물이니, “자기 아들에 의해 서 속임을 당하는 장님”같은 비참한 묘사할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축복을 하려는 에서를 보게된다. 이삭은 이일에 있어서 리브가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에서가 축복을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자기 의지를 세울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에서에게 축복이 가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야곱을 위한 두번째 축복을 남겨두지 않는 것도 놀라운 것이다(비교 35, 37절). 이삭은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3. 에서에 대해서 보면 25:29f에와는 전혀 다른 그를 보는 것 같다. 여기서는 그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 아니라 이상 더 “내가 죽게 되었으니……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하지 않는다. 그는 지금 아주 적극적이다. 그는 또한 “장차 올 것들에 관하여”(peri toon mellontoon) 결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제 에서는 진실로 달라진것 같이 보인다. 모든 것이 일어난 후라 할찌라도 문제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용서함이 있기 때문이다. 희개의 길에는 모든 막혀진 길이라도 다시 열려진다는 것이 언약에 있다. 에서에게 비극은 그가 행한 모든 것에서 돌아서지 않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에서는 야곱을 속이는 자, 도둑으로 누명을 씌울 자격이 없는 그이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뱡세하여 판것은 그당시 그가 곤고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만족이 여겼기 때문이다. 오늘 그는 축복에 관심하고 있는데 맹세하고 팔아버린 그 사실이 언제인가! 이제는 사냥은 안하고 축복을 얻겠다고 함은 사기가 아니면 무엇이며 야곱은 대항하는 사기극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다. 직업소명이며 장자명분 파는 일이며 결혼생활 등등 야웨를 거스린다. 그는 아브라함의 분리생활을 의식적으로 파기한 자이다. 그가 지금 아브라함의 축복을 얻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분리와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에서에게 한가지 길은 있다. 그것은 희개의 길이었다. 에서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하였으나(eulogia meta dakruoona),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

가 되어 희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히12:17)”고 하였다. 아직도 희개의 길이 남아 있는 이상 희망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 옛날 길로 가고 있었다. 그런고로 믿음으로 진행된다 하여도 그 사람은 육적인 것이다.

4.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한다(25:28). 그녀는 그녀의 두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25:23).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안다(25:29-34). 그런데 그녀는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얻도록 하는데 수단이 된다. 이삭과 에서간의 말을 엿듣고(27:5)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를 속이도록 함께 모의하도록 야곱에게 명령한다(6-10). 야곱이 반대하고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질 것 두려워 하는 것을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기가 그 저주를 취하겠다고 한다(11-13). 그래서 세심하게 에서의 향취가 나도록 하고 염소새끼 가죽을 입힌다(15, 16). 그리고는 46절에는 에서가 야곱의 생명을 죽이려 하므로 야곱이 떠나야 겠다고는 말을 하지 않는다. 야곱은 자기 어머니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수행하는데, 그 수행이 완벽하다. 그야말로 전문적으로 숙련된 속이기 행세를 한다(특히 19절). 11절 12절에서는 속이는 자체보다는 자기행위 결과들에 근심하였다. 그러나 리브가나 야곱도 이삭과 비교해 볼때에 총애 받을 만한 인물은 못된다. 저들은 큰자가 작은자를 섭길것이라고 하는 신탁 말씀은 믿었지만, 이것은 야곱이 결국 다스릴 의미는 아닌것 같고 그저 이 싸움에서 어느 한 편의 축복이 갈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작은자는 스스로는 언제나 작은 자로 남는다. 하나님이 칼을 뽑지 않는다면 야곱은 따라잡지 못한다. 이 큰 싸움에 야웨가 간섭하심으로써만 축복이 온다. 그런고로 모자에게 있는 것 한가지 일은 오직 야웨 행위에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싸움에 개입될 수 있는 모든것 - 간교, 간사, 속임 - 을 개입하려 한다. 할 수 있는 길이며 다 하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작은 자로 남으니, 에서의 장자권이며 그에게 유익되다 싶은 것은 다 쟁취하려하니 끝이 없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믿음의 자세 문제였다. 이삭과 에서를 대항하는 저들의 자세는 육적 힘의 구조로 응수할 성격이 아닌데 저들 편에서 온갖 수단의 육적 힘을 가렸던 것이다. 이러한 저들의 자세는 하나님을 대항하였고 무엇보다 저들은 완전하지(tamim)를 못했다.

리브가는 처음부터 교육시킴에 알력을 끌어들여 관계를 독소화 시켰다. 그녀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 에서를 버리는 규범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그녀는 자신들의 수단들로 그 선택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믿음으로(pistei) 장차 올 것을 잡으려고는 하였지만 축복을 얻는데, 계시된 규범에 불합체 있어야 했는데, 이삭과 이삭 못지않게 육적이다. 이

삭 역시 축복을 말함에 완전한 자에게만 얻을 수 있는 계시된 뜻에 매여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뜻을 멀시하고 완악하여졌다. 에서도 그 축복을 얻음에 모든 것을 제쳐 놓고 한가지 끝 회개의 길에 매여 있음을 안다. 그는 그것을 완악하게 거절했다. 리브가며 야곱역시 선택의 말씀을 성취하심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만 되어지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을찌언정 조금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것이 아님을 알았는데 저들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완악하게 되었다. 여기에 완전함에 대해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리브가로 말하면 큰 속이는 일의 계획에 자기가 먼저 꾸몄다. 야곱이 이를 머뭇거릴때 그것은 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단지 죄 밟았을까 싶어서 그리고 그에 따라오는 심판을 두려워한 것이다. 대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죄는 언제나 저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그가 이제 생각해 내는 것은 죄의 발각은 저주를 가져오니 아버지가 죄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해서 저주의 말씀을 생각 나지 않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리브가의 시키는데로 따르는데 대한 야곱의 불안도 육적이다. 리브가는 저주를 우습게 여기고 그 저주가 내게로 돌릴찌어다하여 이들은 죄와 저주를 모두 우습게 여긴다. 이들은 믿음의 법을 곽해하기 때문에 아무런 걸리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생각해 내고 어떤 특수한 일이라도 (예외적인 것이라도) 정욕으로 이루려고 하고 속임에 대해 아무런 후회도 없다. 저들은 하나님의 경전하고 이름까지 들먹인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전히 만나게 하셨나이다(20). 이들은 선택되었다는 강한 환상에 사로 잡혀 지금 잘 돼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같은 입장이 후에 이스라엘 이 바벨론 포도를 슬퍼하는 모습이다(암3:2).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하는 유대인들의 정신도 같은 마음 상태이다.

이렇게 볼때 모든 편에 죄가 처음부터 내재하고 있고 배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다. 저들이 언필칭 모두 믿음으로(pistei) 축복을 받는다고 하지 만 언약의 규범에 스스로 조심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여기에 오직 재앙만 따라온다. 가까이 개인적으로 이야기의 결과에서 분명하듯 저들 죄악들만 징벌치는 않는 것은 아니다. 에서는 자기 장자 명분을 멀시한데 대해 이 속임을 당하는 징벌을 받는가하면 야곱은 하란에서 라반과 함께 어렵게 살아야 했다. 이삭은 놀라움으로 자기 실수를 보게되며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다시 하관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두 아들에게서 각각 삶의 길로 나간다. 이 모든 것은 24:27에서 나오는 목가적 생활에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이루어 나가신다. (히11:28 ; 12:16.17)

육적 모든 길에 대해 승리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창27:20-28:9

박종칠 교수

A. 주석적 고찰

1. 20절이 “속히 잡았느냐”(*צִמְלַחַת גַּם־נִגְשָׁה Ges-K. §114n Jouon §124n)와 “만나게 하셨다”(גַּרְכֵּת)는 동사들에 관계된 목적어가 없다. 그리고 자기 일이 잘되게 하신 분을 말할 때에 야곱은 “자기”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당신의)”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므로, 이 사기극을 벌임에 “나의”하나님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다. 21절의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גַּעֲמַלְתִּי)← ← 그림 의 형태에 대해서는 Jouon §820를 보라)고 에서가 말한것은 그가 듣는것 보다도 만지는 것에 더 신뢰하려고 한 것이다.

2. 23절의 “분별치 못하고”(וְאֵדֶת אֵלֶיךָ)← ← 그림의 히필형) “축복 하였더라”(וְאָמַרְתָּ בְּרָכָה;)는 말에서 어떤이는 (Gunkl, procksch등) 축복의 내용이 끝 뒤따라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문서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21-23절은 E자료로 24-27a를 J자료로 본다. 그래서 E.A.Speiser도 두번이나 나타나므로해서 (23, 27)문맥의 내적 논리성이 깨어진다하여 “still, on he was about to bless him”으로 번역한다. 그런데 B.Jacob는 다르게 본것 같다. 그는 이렇게 번역했다. “그를 환영하고 인사하고 그를 칭찬했다”(or hiess ihn willkommen, begrusste, lobte ihn)고 했는데, 이삭이 야곱을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했는데, 여하한 방법으로 확실히 확인하고 난 후로는 그는 에서를 가까이 오도록해서 만져보고 그를 환영해서 본질적인 축복을 할려고 했다는 뜻이다(비교19절). NEB는 “and that is why he blessed him”이라고 한다.